

1월의 기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옵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정심을 소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거저 누렸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섬김을 이웃에게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사람을 살리며 소망을 주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옵소서.
4. 하나님 아버지, 원칙과 형식에 매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복된 2023년 새해를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밝아오는 이 때, 지난 해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마음 깊이 회개 합니다. 새해는 더 새롭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믿음으로 이기는 고난

어릴 때 제가 학교에 가는데 길가에 잠자리 한 마리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그 고치의 등을 짝 찢어서 잠자리가 쉽게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틀림없이 이제 잠자리가 고치에서 나와 날아갔을 줄 알았는데 잠자리는 고치 밖에 나와 있지도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잠자리는 한 번 날아 보지도 못하고 개미들이 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잠자리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면 그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유연하게 하고, 햇빛을 받으면 날개가 짝 펴져서 나는데 그 고난이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잠자리의 기름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의 잠자리는 공중을 날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잠자리는 날개가 퍼지지 않아서 개미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힘들지만, 잘 이겨 내면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고난이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로 나아가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난 중에도 야곱과 항상 함께하셨고 친히 그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새해를 열며...



성탄절이 지나고 각종 모임과 결산의 마감으로 어수선한 연말이 지나자 어김없이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새해가 찾아왔다. 새해는 여행을 위한 출발과 비슷하다. 여행을 앞두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듯이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는 새 꿈과 목표, 각오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DCEM은 많은 가치들이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어두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숭고한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



새해에도 DCEM은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께 가르침 받은 4차원의 영성을 토대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햇빛을 이어가기 위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일본 및 영국에서 복음전파의 선교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해외성회들이 땅의 영적 성숙의 촉매제가 되어 줄 것이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

들과 120명의 무리가 말씀 앞에 모이고자 할 때 바람 같이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어디에서도 꿈과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사회는 말라버린 샘처럼 본래의 모습을 잃어만 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희망이 되는 말씀의 진리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 혹은 소명을 가지고 새해도 선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DCEM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전세계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이어가자. 조용기 목사가 주도한 세계성령운동의 불이 계속해서 지펴지도록 해 나갈 것이다.



데 새해가 하나님의 해라고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개인 가정 사업 자녀 등 우리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룬 그 은총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새해가 나의 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나의 해라고 생각하면 내가 중심이 돼 살아야하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자라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

가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주어진 모든 것을 나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힘을 다해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네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시 37:5~6)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2013년 신년사, 故 조용기목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오늘날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보면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광풍, 경제적인 광풍, 또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과 같은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광풍을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도움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시 42:5)

2.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과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외워 놓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워 놓으면 다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찰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용기와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 온 천지가 다 캄캄하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평명한 빛과 같이 마음에 들어오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기도로 나아가라

셋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확신

과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곧 시련을 당할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아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자 두 번 기도했습니다.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일곱 번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야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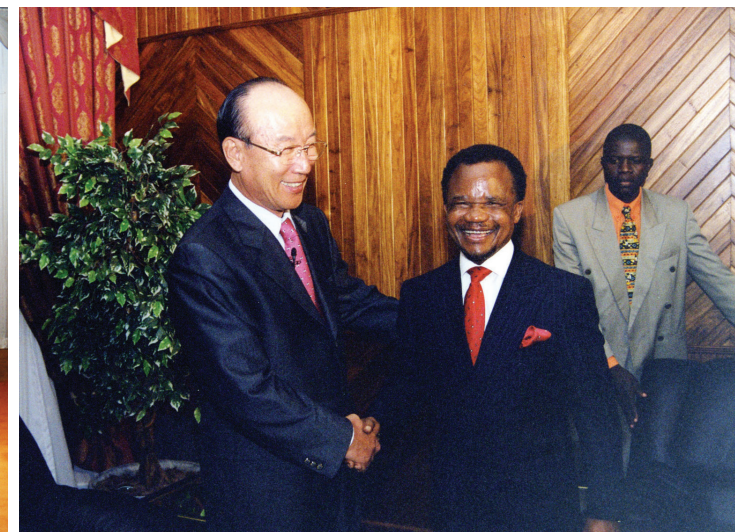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시면 달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가다듬어 열심히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기 목사의 생애와 발자취(8)

선교전문기구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창립



▲2001년 5월 DCEM 창립 1주년 기념식



▲2000년 6월 잠비아. 칠루바 대통령과 조용기 목사



▲2004년 8월 몽골 울란바토르 성회



▲2015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성회

조용기 목사는 중동지역에서도 성회를 개최해 화제였다. 1999년 3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성회’는 연인원 4만5000여 명이 운집해 중동에서 개최된 개신교 행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1996년 2월 전 세계 31개국 5000여 명이 모인 기운데 이스라엘에서 열린 ‘예수탄생 2천년 기념 대축제’는 이스라엘에서의 최초 개신교 집회였기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2000년 2월 조용기 목사의 선교사역과 성령운동을 지원하는 선교전문기구인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이 창립됐다. DCEM은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온 조용기 목사의 선교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양

질의 선교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선교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2000년 6월 잠비아 칠루바 대통령의 초청으로 개최된 성회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오순절 성령운동을 일으킨 성회였다. 2004년 8월 몽골 울란바토르 중앙경기장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 초청 몽골 추수 2004 대성회’는 몽골 기독교 사상 최대 인원인 6만여 명이 참석했고 기독교인 수가 2만5000명에 불과한 몽골 기독교계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는 대사건이었다. 조용기 목사는 2008년 8월 이영훈 목사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세우고 은퇴했지만 2012년 2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같은 해 11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대성회 및 세미나(연인원 100만명 참석)를 인도하는 등 선교열정을 이어갔다. 2013년 7월에는 스웨덴에서 열린 ‘유럽 콘퍼런스 2013’에서 말씀을 전하고, 2014년 6월에는 처음으로 아르메니아에서 성회를 인도했다. 이어 2015년 2월 인도 발릭파판에서 대성회, 2016년 6월 인도 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성회, 8월 마카오 성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태국에서는 2017년 2월(태국 축복과 기적의 대성회), 2019년 11월(치앙마이 태국 복음주의 연맹 50주년 대성회) 각각 복음을 전했다. ‘일본 일천만 구령 운동’에 앞장서온 조용기 목사는 매년 일본을 찾아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